

# “최선의 절세는 성실 신고...최고의 투자는 사람 투자”

##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인

### 1.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올해로 창사 72주년을 맞은 광주일보는 '지역 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사명 아래 광주·전남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제인들을 만나 지역 경제 살리기 해법, 나만의 투자 등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전한다. '먹고 사는' 문제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한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채근담(菜根譚)에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하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세금을 걷어 나라살림을 조달하는 국세청은 4대 사정기관에 포함된다. 법이 정하는 권한을 갖고 추상 같이 세금을 징수하라는 의미다.

지난 6월 26일 오후 만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모습은 마치 봄바람 같았다. 부드럽고, 유



연했으며, 설득력을 가졌다. 호남권 국세 징수의 총책임자인 그의 고향은 순천이며, 1987년 세무대에 들어가 지금까지 37년 4개월간 공직에 머물렀다. 오랜 시간 강함과 엄격함으로 상대를 대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가질 수 있는 너그름과 세

37년 간 공직생활... 후배들에 지혜 알려주던 시절이 가장 행복  
민생 지원·어려운 기업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유연함도 필요

련됨을 겸비하며 누구나 오를 수 없는 고위직에 올랐을 것이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간 자리한 국세 공무원교육원장 당시의 기억을 가장 행복하게 간직하고 있다.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자신이 쌓아 올린 지혜와 경험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었고, 젊은 그들과의 소통법을 일깨워준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세금 징수의 최고 전문가, 양동구 청장이 전하는 지역 경제에 대한 조언, 절세 방법, 자신의 성공적인 투자 등을 솔직하게 들려줬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세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간단히 설명한다면.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세금을 잘 걷어서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 세금을 복지, 기반시설, 교육, 국방 등에 투입한다. 요즘은 복지에 정부 재정의 30% 이상이 쓰인다.

- 국세청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

▲국세청에서는 크게 4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납세의 편의를 제공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생 경제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일을 해도 소득이 낮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준다. 세 번째로는 공정과세를 실현한다. 세금을 신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또는 변칙적으로 탈루하는 기업·개인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서 추징하고, 체납하는 경우 철저히 받아낸다. 마지막으로 밖으로는 기업인들과 만나 어려운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해 국제 행정에 반영하고, 직원들의 행복이 곧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소통에 힘쓰고 있다. 결론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제 행정'이다.

- 너무 길었다. 세금을 보면 경제가 보인다 고 한다. 호남의 세금 징수 추이를 설명한다면.

▲맞는 말이다.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면 당연

히 세금은 더 걸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인 광주·전남·전북의 최근 3년 성적표는 썩 좋지 못했다. 2021년 16.1조원이었던 세수는 2022년 15.1조원, 2023년 13.8조원까지 내려앉았다. (이 기간 전국 세수는 2021년 344.4조, 2022년 384.2조, 2023년 335.6조의 추이를 보였다)

- 광주지방국세청의 세금징수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좀 뜻밖일텐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정유 공장들이 내는 교통세로 무려 4조원 이상이 걸린다. 호남 세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유류세 인하로 조금 감소했다. 호남은 건설업 비중이 높아 그 흐름에 따라 경기가 달라진다. 지난해부터 건설업이 썩 좋지 못해 걱정이다. 관련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하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고 봐야 한다.

- 양 청장께서는 자타공인 세금 전문가다. 솔직한 절세 기법을 알려달라.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빛 못갠 소상공인 급증...지역신보 대위변제액 1조 돌파

1~5월 대위변제 1조291억  
지난해 동기 대비 74% 경증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경증 뛰었으나 올해 들어서도 70% 넘게 급증했다.

올해 대위변제액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천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958억원)과 부산

(841억원), 경남(782억원), 인천(620억원), 경북(599억원), 대구(545억원) 등 순이다.

광주는 263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83.92% 늘었고, 전남은 237억원으로 동일 대비 71.74% 증가했다.

양부남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도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세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통계청,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내년 시행

통계청은 1일 '제 1차 개정 한국표준건강분류(KCF)'를 고시하고,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KCF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ICF)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건강 관련 통계작성 및 장애·복지·재활 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분류를 가리킨다.

이는 지난 2016년 KCF가 제정된 이래 8년만

에 첫 개정으로, 기존 분류체계는 유지한 채 '국제 분류와 국내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제분류 변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WHO의 ICF는 24건의 코드를 신설하고, 1건은 삭제하는 등 정교성을 최신회한 뒤 전문가 자문 등 내·외부 검토를 거쳐 1차 개정안에 반영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세일글

### “수출유망기업 성장 돕고 관세 역량 집중”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해 수출유망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 지원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수출입 업무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수 제44대 광주본부세관장이 지난달 29일 취임했다. 신임 김동수 본부세관장은 취임식 없이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세관장은 “자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마약·불법약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신임 김 세관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해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사과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등 주요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 GGM 노조 “교섭 회피에 노조 탄압” 주장에 사측 전면 반박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노동조합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캐스퍼 전기차 출시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GGM에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역 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노조위원장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GGM은 1일 입장문을 내고 “GGM은 노조가 주장한 교섭을 회피한 적이 없다”며 “노조 탄압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합은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

이)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GGM은 “앞서 노조(제1노조)와 지난 3월 27일 단체교섭을 하기로 했으나, 제2노조가 결성되면서 단일노조 교섭과 공동 교섭을 두고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받느라 교섭이 지연됐다”며 “이후 6월경 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와 관련 GGM은 또 “노조위원장이 사규에 어긋난 행동을 했고,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폭언을 해 업무지시 불이

행, 사규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04.31 (+6.49)
▲ 코스닥	847.15 (+6.71)
▲ 금리(국고채 3년)	3.210 (+0.028)
▲ 환율(USD)	1379.30 (+2.60)